

“성평등 광주 실현·현장형 정책개발 박차”

김미경 제5대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취임

맞벌이 부부 위한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추진
지역여성네트워크 활성화로 소통 기반 구축

“성평등 공동체 광주 실현을 위한 여성가족정책기관으로 우뚝 서기 위해 기반 조성 구축에 주력할 것입니다.”

광주여성재단의 제5대 수장으로 임명된 김미경(55) 대표이사가 15일 오전 취임식에서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이용섭 광주시장으로부터 임용장을 받아 이날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2011년 광주여성재단 설립 당시 준비단장을 지낸 바 있는 김 대표는 줄곧 이사와 감사 활동을 하며 재단 경영에 참여해 왔다. 광주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광주여성노동자회 대표, 광주여성연합 공동대표, 한국여성학회 이사 및 대외

협력위원장, 한국여성연구소 부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제2의 도약기를 맞아 광주여성가족재단으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라며 “성평등 도시 실현을 위해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조성 사업 추진 ▲정책개발 직렬제 도입 ▲사무공간 이전 및 여성가족복합문화공간 조성 ▲젠더거버넌스 확대 구축 ▲현안 및 수탁과제 집중 등의 향후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취임과 동시에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이는 광주의



역점사업인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광역 단체 최초로 입원아동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입원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돌봄 실천과 양육부담 경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단이 현장밀착형 여성가족정책개발과 지역여성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지역여성에게 소통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조직 혁신과 안정을 추

구해 내부 구성원들이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행복하고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지역 여성단체 및 유관기관, 의회, 언론기관 등을 방문해 지역여성가족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도움을 요청하고 협력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인 김 대표는 서강대 대학원 사회학 석사를 졸업하고 독일 보쿰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여성정책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표이사 후보자 시기에 교수 휴직 처리가 늦어져 우려를 낳은 데 대해 김 대표는 “지원하는 과정에서 급박하게 결정을 하다 보니 학교와 여성재단 측과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청문회 이후 신속히 처리해 대표이사 취임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여성재단은 2011년 6월 출범한 광주시 출연기관으로 여성가족정책연구, 지역여성네트워크 구축, 성평등 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문화 공간 운영 등 성평등 도시 광주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겨울기자

김인혜 GIST 박사 ‘2019 미래인재상’ 선정

자연과학분야 ‘화학’부문 유일

GIST(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 신소재공학부 김인혜 박사가 (사)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여성과총)에서 주관하는 ‘2019 미래인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미래인재상’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를 이끌어 나갈 여성과학기술인을 발굴·포상해 과학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2010년 제정됐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여성과학자 중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는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여성과총은 과학기술 전 분야 만 40세 미만,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박사후과정 연구원 가운데 탁월한 연구 성과를 거둔 자를 선정하며, 올해 자연과학분야에서 2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는데 이중 ‘화학’부문에서는 김인혜 박사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김 박사는 국가핵심인재양성 프로그램인 글로벌박사펠로우십의 지원을 받아 ‘펩타이드 초분



자 자기조립 기반 진단 및 치료 나노제제’ 연구 주제로 2019년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신소재공학부 이은지 교수 연구팀에서 자가조립하는 펩타이드의 분자 설계 및 초분자 나노구조체 제어를 통해 특정 세포 소기관 타겟 항암제, 조직 및 장기에 적용 가능한 가스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어 박사는 “학위 과정을 마치고 독립적인 연구자로 처음 받은 상이기에 매우 뜻깊고,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새내기 연구자로 이 상이 주는 무게감에 책임감을 가지고, 상의 취지에 걸맞은 연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생화학 반응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효소를 모방해 유용한 하이브리드 화합물 생산할 수 있는 펩타이드 나노촉매를 개발하는데 매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시상식은 오는 11월15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다. /김종민기자

담양 인애요양병원, 수북면사무소에 쌀 80포 기탁

담양군 수북면 소재 인애요양병원(원장 은정남)이 따뜻한 나눔으로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인애요양병원은 최근 열린 개업식에서 화환 대신 쌀을 기부 받아 관내 경로당 및 저소득층을 위해 전달해 달라며 수북면사무소(최미정 면장)를 방문, 쌀(20kg)/80포(4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은 원장은 “화환이나 선물을 받는 것은 행사를 빛낼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 위해 쌀 기부로 대신하게 됐다”며 “쌀 기부로 이웃



사랑에 동참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영암산림항공관리소, 항공안전 전문가 초청 특강

영암산림항공관리소(소장 민병준)는 15일 경운대학교 비행교육원 안경수 원장을 초청해 ‘안전관리의 기본’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제5회 항공안전의 날을 맞아 안전관리 실무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초청해 직원들의 항공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안 원장은 “항공안전은 시스템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비행기를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소장은 “특강을 통해 안전관리의 기본과 경량 항공기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영암



관리소와 인접한 경운대 비행교육원과 항공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적극 행정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이봉영기자

북부소방서, 말바우시장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광주 북부소방서(서장 조태길)는 지난 14일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 22일 서울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화재 등 전통시장 내 화재발생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커짐에 따라 신속한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과 대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유관기관 합동으로 훈련이 진행됐다.

또한, 소방차 길 터주기에 대한 대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관내 대상물의 교통량이 많고 혼잡한 상습정체 구간인 북부소방서-홀플러스-말바우시장 구간까지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했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



하는 소방자동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소방기본법 적용을 받게 된다”며 “소방자동차 차선양보는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당연한 의무이므로 지체 없는 양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환준기자



광주여대, 상이군경회 유공자 초청 뷰티·나눔 페스티벌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는 지난 11일 대학 본관 국제회의장에서 광주보훈복지문화대학, 광주지방보훈청, 미용과학회(등문회) 후원으로 상이군경회 국가유공자들을 초청해 2019년 뷰티·나눔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마음나눔과 연계해 감사와 사랑을 실천하고, 상이군경회 국가유공자들에게 희생과 공훈에 보답하고자 보훈복지문화대학의 어르신 43명을 초청해 재학생, 교수, 동문들이 함께하는 기쁨과 화합의 장으로 펼쳐졌다.

이 자리에는 광주여대 이선재 총장, 광주지방보훈청 하유성 청장, 상이군경회 광주지부 김점수 지부장, 광주여대총동문회 이순 회장, 미용과학회와 등문회 김미혜 회장 등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전통국악양상불 놀음판의 우리소리 한마당을 축하공연으로 시작해 1부 미스터·미스트롯 경연대회, 2부 새날마중 추억공작소의 순으로 진행됐다.

추억공작소에서는 어르신들께 손톱단장, 향기단장, 머리단장, 얼굴단장을 해드리고, 교복, 교련복, 모자, 가방, 팔 안장 등 추억단장으로 학창시절을 재연해 추억의 사진으로 담아냈다.

이 총장은 “젊은 시절 조국수호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바치신 그 뜨거운 희생정신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가꾸고 계승해 나가야 할 정신적 유산이다. 송강 가족과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종민기자



동강대 ‘도서 다독자상’ 시상…장세은씨 최우수상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책 향기로 흠뻑 물들었다.

동강대 학술정보원(원장 지혜련)은 최근 도서관 2층 자료실에서 ‘제18회 도서 다독자상’ 시상식을 열었다.

동강대는 올 3월4일부터 지난 9월30일까지 7개월 간 도서 대출 횟수가 많은 재학생 5명과 지

역주민 1명, 1개 학과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보건행정과 장세은(1년)씨가 받았고 지역주민에게 시상하는 특별상은 김정화씨가 주인공이 됐다. 다독 최우수학과상은 간호학과가 차지했다.

지 원장은 “동강대 학생들 뿐 아니라 지역민들에게도 책 읽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독자상 시상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종민기자

닷넷소프트 임직원, 착한일터 참여로 따뜻한 나눔실천

(주)닷넷소프트(대표이사 최병준) 직원들이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상원)의 착한일터에 참여해 15일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착한일터는 기업·기관·단체의 임직원 5인 이상이 매월 급여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는 정기기부 프로그램으로, 기부금은 광주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된다.

최 대표는 “직원들이 다함께 나눔에 동참해 그 의미가 더욱 깊고, 매월 사랑과 정성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성도 사무처장은 “착한일터에 동참해주신 닷넷소프트 임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해주신 귀한 성금이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잘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닷넷소프트는 소프트웨어 판매 및 솔루션을 컨설팅하는 IT전문 기업으로써 2015년부터 매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통카드를 지원, 광주시 관내 중·고등학생 100명에게 한 학기 동안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교통비로 지원하고 있어 주위에 귀감이 되고 있다. /문철현기자

화순전남대병원 김정희 팀장 ‘호스피스’의 날’ 복지부장관상



화순전남대병원 김정희 팀장(호스피스 완화의료팀장)이 지난 11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제7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김 팀장은 광주·전남 호스피스간호사회 초대회장을 맡아 지역내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에 기여했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진과 보호활동인력,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교육 시스템 확충에도 힘을 쏟았다.

화순전남대병원 완화의료팀장으로서 8년여간 근무하며, 완화의료팀을 이끌고 말기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담과 돌봄서비스 내실화에 앞장서 왔다. /오송지기자

조선대 대학원 홍민 코아 응웬씨 ‘아시아 열물성학회’ 우수발표상



열물성 분야에서 권위 있는 국제학술대회인 ‘아시아 열물성학회’에서 조선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1학년 홍민 코아 응웬(26세·베트남)씨가 ‘best poster award’를 수상했다.

조선대학교(총장직무대리 홍성금)에 따르면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중국 시안에서 개최됐으며, 총 184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이중 우수 발표자에게 수여하는 상이 ‘best poster award’다.

응웬씨와 지도교수 오동욱 교수는 ‘Anlaysis of carbon fiber alignment in a PDMS matrix flowing in an orifice channel’(오리피스 유로에서 PDMS와 탄소 섬유 첨가제 혼합물의 첨가제 정렬에 대한 분석)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연구는 기존에 기술적 어려움으로 관찰, 정량화가 불가능했던 폴리머 복합소재의 기계적인 물성을 제어하고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응웬씨는 “처음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에서 큰 상을 받아서 놀랍고 기쁘다. 앞으로도 폴리머 복합소재 관련 추가 실험 및 연구분석을 수행해 보다 ‘열이 잘 통하는 플라스틱’을 개발하는데 앞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김종민기자

호남대 임선호씨 ‘남도음식경연’ 최우수상



호남대학교 조리과학과(학과장 김영균) 1학년 임선호씨가 최근 강진군 생태공원에서 열린 ‘제26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남도음식경연대회’ 청년부 경연에서 최우수상인 전남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임씨는 “참나물 페스토로 만든 각기 다른 4가지색의 토르텔리니, 흑임자 소스”를 출품해 수상했으며 “지역의 식재료를 이용해 한국음식을 세계화 하도록 노력하고, 더 다양한 메뉴를 개발해 콘텐츠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종민기자

결혼

- 김세원·박규숙씨 장남 진영군, 김형석·강미숙씨 차녀 수지양=19일(토) 낮 12시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59 라봉웨딩홀 3층 더하우스
- 전희주(담양군 직소민원실장)·유옥민씨 장남 시형군, 노원·김미자씨 차녀 나리양=20일(일) 낮 12시 광주 서구 죽봉대로 1530 웨딩그림 위더스 광주 5층 엘린홀
- 박영준·배정숙씨 차남 성웅군, 박화석(우유성정공 회장)·배명숙씨의 장녀 영서양=19일(토) 오후 6시 광주 서구 농성동 393-57 라페스타 웨딩홀 2층 엘루제홀
- 갈래환(뉴스호남 대표이사 겸 편집국장)·윤주원씨 딸 도요양, 유수복·최미화씨 아들 용균=27일(일) 오후 2시 드메르웨딩홀 4층(라비엔홀)
- 송창근(해남군청 재무과장)·김연화씨 아들 정훈군, 김선기(강진군 시문학파기념관장·전 남도일보 논설실장)·정경란씨 딸 솔양=26일(토) 낮 12시 광주 서구 광천동 웨딩그림 위더스 3층 엘리제홀

부음

- 김선남씨 별세, 류기준(전 영광초 교장)씨 부인 상, 류선경(전 수피아여중 교사)·혜경(서광병원 병원장)·종선(전 신한은행 지점장)·경주(서광병원 경영원장)·상욱(서광병원 정형외과 원장)·상완(순천 성가톨릭병원 흉부외과 과장)씨 모친상, 윤창현(전 현대중합상사 호남지사장)·서해현(서광요양병원 병원장)·김규성(주식회사 예오 대표)씨 장모상=발인 18일(금) 오전 8시 광주 서구 천지장례식장 202호실(062-527-1000)